

떠오르는 중국 스마트 주차산업 동향

<목 차>

- I. 발전 배경
- II. 중국 주차산업 현황
- III. 정부 및 민간분야의 정책
- IV. 향후 전망 및 시사점

<요 약>

- 중국은 연속 9년 간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과 소비국으로 부상하여 자동차 보유량이 계속 증가하여 주차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하면서 주차산업이 고속 성장
- 주차산업은 이미 독립적인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이 가시화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시에 자본유입이 늘어나면서 해당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
- 최근 복합형, 입체형 등 기계식 주차장 건설이 점차 증가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기술혁신을 통해 주차산업이 스마트화되고 있음
- 스마트 주차산업은 아직 초기 도입 단계로 성장공간이 매우 크며 산업규모가 1천억 위안을 웃돌 수 있을 것으로 예상
- 한국기업은 사물인터넷, IT솔루션 등 면의 비교우위로 세부시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제휴를 통한 진출이 바람직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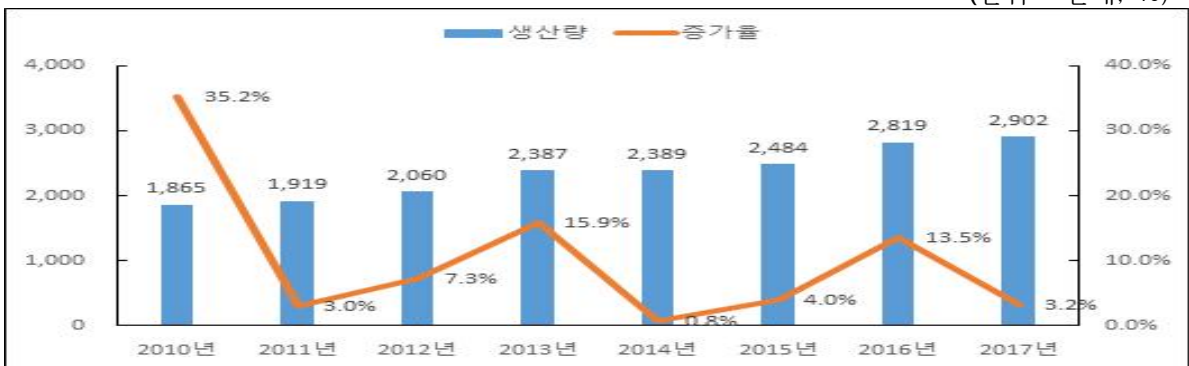
I. 발전 배경

□ 중국은 연속 9년 간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과 소비국으로 부상

- 2001년 WTO 가입 후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질적, 양적으로 대폭 성장
 - 현재 유수의 글로벌 자동차업체가 중국에 진출한 결과 중국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120여개에 달함
 - 2017년 기준 자동차생산량은 전년대비 3.2% 증가한 2,902만 대에 달함

<2010~2017년 자동차 생산량 추이>

(단위 : 만대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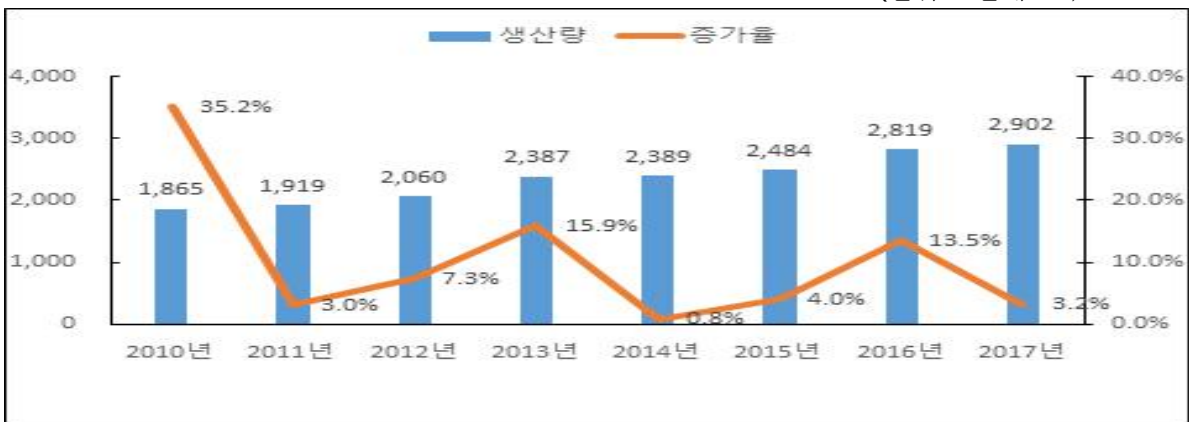


출처 : 중국자동차공업협회

- 주민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도시화 진척이 가속화되면서 자동차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이
 - 2017년 기준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3% 증가한 2,888만 대에 달함

<2010~2017년 자동차 판매량 추이>

(단위 : 만대, %)



출처 : 중국자동차공업협회

□ 자동차 보유량 증가로 스마트 주차산업이 고속 성장세

- 스마트 주차산업이란 한정된 주차공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, IoT, 인공지능, 무선통신, 빅데이터 등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산업을 말함
 - 스마트 주차는 주차장 검색, 주차공간 예약, 주차안내, 요금지불 등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운전자의 주차체험을 향상시키고 수집된 정보를 빅 데이터로 분석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
- 스마트 주차산업 분야의 기술혁신과 주차장 시장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
 - 물론 현 단계에서 중국의 스마트 주차산업 기술이 선진화되지 못하고 해당 기술표준이 미흡한 상황
- 자동차 보유량 증가와 인프라 부족에 따른 주차공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절실함

□ 중국의 스마트 주차산업은 향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해당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

- 중앙정부의 빅 스마트 교통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에서 정책지원이 가시화될 뿐만 아니라 시장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중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음
 - 현재까지 100여 개 도시에서 200개가 넘는 주차장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산업에 큰 관심을 쏟고 있음
- 2020년에 중국의 스마트 주차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천 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
 - 중국주차망(中国停车网)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주차 관련 전문 업체가 2,000여 개에 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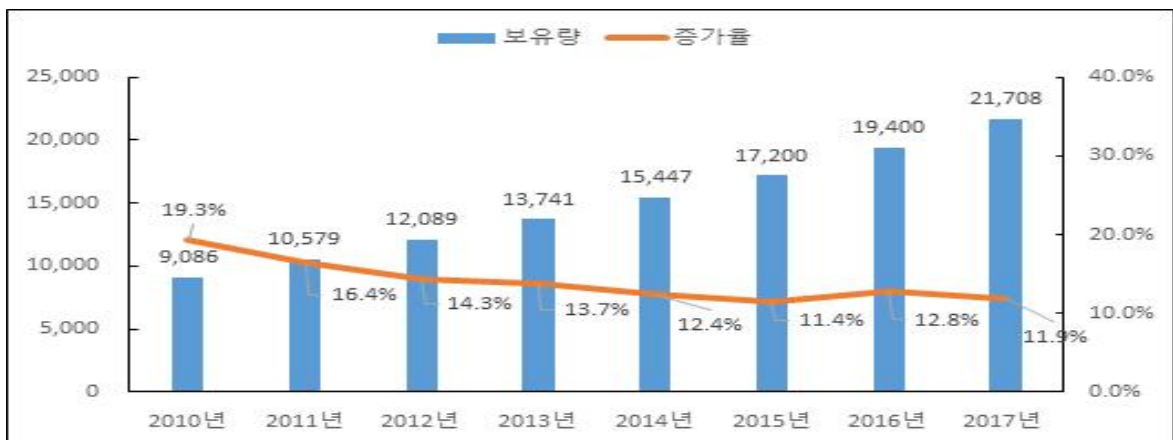
II. 중국 주차산업 현황

□ 자동차 보유량 지속적 증가로 주차 수요의 증가

- 2010~2017년 자동차 보유량은 연평균 13.1%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
- 2017년 말 기준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2,2억 대에 달함
 - 자동차 보유량이 300만 대 이상인 도시는 북경, 상해, 광주, 성도, 중경, 소주 등임
 - 그 외 자동차 보유량이 200만 대 이상인 도시가 23개, 100만 대 이상 보유한 도시가 49개에 달함

<2010~2017년 자동차 보유량 변화추이>

(단위 : 만대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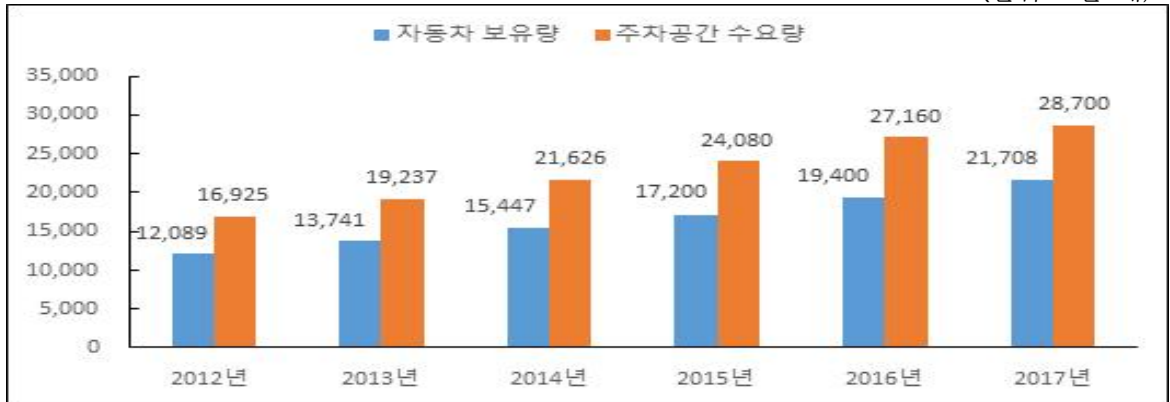
출처 : 중국국가통계국

□ 주차장 공급 부족으로 주차난 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

- 국제 관행기준(자동차 1대 당 주차공간 1.4개)에 따라 계산하면 중국의 자동차 주차공간 수요량은 약 2.9억 개에 달함
 - 현재 중국의 천 명당 자동차 보유량은 140대로 국제 평균 수준(135대)을 초과

<자동차 보유량 및 주차공간 수요량 변화추이>

(단위 : 만 대)



출처 : 중국주차망

□ 현재까지 전통 주차장이 주를 이루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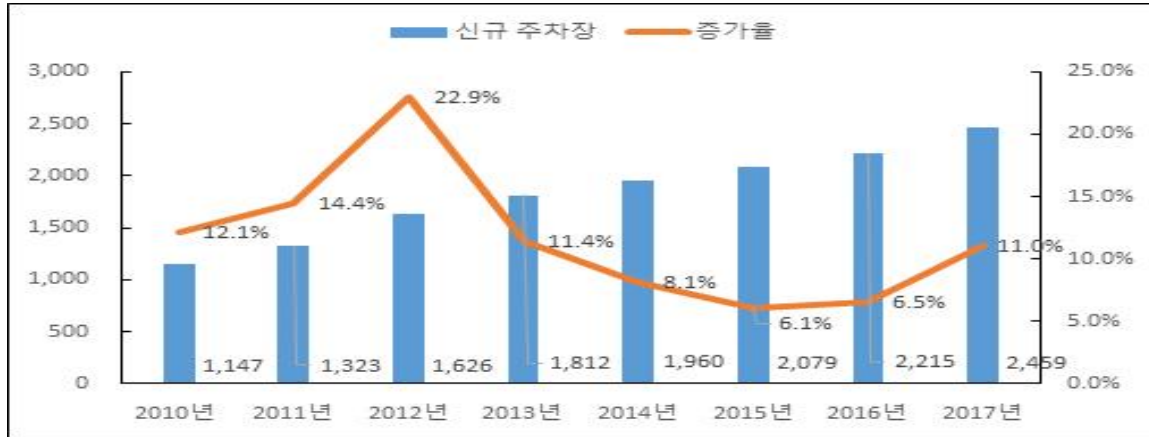
- 주차장 형태별로 전통 주차장이 전체의 90%를 차지하며 기계식 주차장이 10%에 불과
 - 전통 주차장은 자동시스템이 아닌 인공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함
 - 2017년 기준 중국의 전통 주차공간은 8,000만 개에 달함
- 그러나 전통 주차장은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관리가 시스템화 되지 않아 효율성이 낮음
 - 현재 주차공간 이용율은 50%미만이며 주차장 규모가 클수록 이용율이 더욱 낮은 현실
 - 또한 도시의 주차장이 적고 주차공간 이용율이 매우 낮아 자원낭비 현상이 매우 심각함

□ 최근 복합형, 입체형 등 기계식 주차장 건설이 지속적으로 증가

- 신도시 건설, 복합형미래형 건물이 늘어나면서 기계식 주차장도 연 평균 10%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음
 - 2017년 신규 증가한 기계식 주차장은 2,459개, 주차공간은 81만 개에 달함

<2010~2017년 기계식 주차장 증가추이>

(단위 : 개, %)



출처 : 첸잔산업연구원(前瞻产业研究院)

□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기술혁신을 통해 주차산업이 스마트화 되고 있음

- 전통 주차장에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기계식 주차장에 번호판 촬영 및 인식기술 등 관련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주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
 - 주차장 스마트화 기술은 주차장 출입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주차공간 이용율을 최대한 늘릴 수 있어 경제적, 사회적 효과가 높음
- 중국의 스마트 주차산업은 아직 초기 도입 단계로 2017년 말 기준 전국에서의 비율은 6%에 불과
 - 설비 : 선진국의 기계식 주차설비를 도입하여 자체개발을 통해 승강이동형, 수직이동형, 수평이동형 등 다양한 주차공간 제공 가능
 - 결제 : 온라인 결제 가능
 - 관리 : 사물인터넷을 통해 주차공간 검색, 예약, 안내 등 서비스 제공
- 현재 한 개 주차장의 스마트화 관리는 가능하지만 한 개 구역 혹은 한 개 도시의 통합관리는 제한적임

□ 주차산업이 독립적인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

- 주차산업은 기존 교통의 중요한 구성부분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집중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독립적인 산업으로 부상
 - 주차산업은 주차장 건설, 주차설비 설치, 주차장 관리시스템 등 3개 부분으로 구성
 - <심천시주차산업발전보고(2017)>에 따르면 2016년 심천시 주차산업 규모는 241억 위안으로 새로운 100억 위안 규모의 산업으로 부상

Ⅲ. 정부 및 민간분야의 정책 방향

□ 정부의 정책지원 및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자본이 스마트 주차산업으로 몰리고 관련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음

- 2015년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<도시주차장건설 지도의견>을 발표
 -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차산업을 단독 산업으로 지정하고 민간자본에 시장을 개방
 - 향후 아파트 단지, 대형 교통시설, 병원, 학교, 관광지 등 특수구역에 공공주차시설 건설을 확대하고 주차건물, 지하주차장, 입체형복합형 주차장건설을 추가함
 - 시장진입 면에서 기업 혹은 개인이 공공 주차산업에 투자제한을 취소

<스마트주차장 건설관련 정책(국가발전개혁위원회)>

발표시간	정책명	정책내용
2017년 2월	<13·5 현대종합교통체계발전계획>	교통발전의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하여 교통산업의 스마트화발전을 추진
2016년 11월	<도시주차장 시범사업에 관한 통지>	정책지원, 자금지원, 금융혁신을 통해 인터넷+주차, 주차공간 공유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
2016년 8월	<도시주차장계획건설 및 토지정책>	주차시설을 합리적으로 건설하고 토지사용

	에 관한 통지 >	율을 제고하여 민간자본이 입체형, 복합형 주차장 건설투자를 권장
2016년 7월	<인터넷+교통건설, 스마트교통 건설 실시방안>	교통과 인터넷의 융합발전을 촉진하여 고효율 교통시스템 구축
2016년 2월	<도시 주차장건설을 가속화하는 방안에 관한 약간의 의견>	하이테크산업기술을 주차장건설에 응용하는 실시방안을 제시

자료 :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

- 2017년 44개 지방도시에서 토지양도, 주차장 투자, 건설, 관리 등 70여 개가 넘는 주차산업 관련 정책문건을 발표하였음
 - 주차장 토지이용, 건설기획, 정부재정 지원, 민간자본의 BOT참여 방식 등을 세부화시켜 발표
 - 특히 스마트주차장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, 자금조달, 세제우대 등이 포함됨

<주요 도시별 스마트주차장 관련 정책>

도시	정책 명	주요 내용
북경	<북경시주차장관리조례> (2017년)	주차장 투자, 건설, 관리, 운영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스마트주차장 건설을 역점사업으로 제정
상해	<상해시 주차시설건설에 관한 지도 의견>(2016년)	인터넷+ 수단으로 주차장 산업화·시장화를 주요 임무로 정보화 추진정책을 발표
심천	<심천시 주차시설 건설계획> (2017년)	2020년 까지 주차장 산업규모를 500억 위안으로 확대하고 인터넷+주차 모델로 스마트주차장 건설을 확대
중경	<중경시 주차관리방법>(2016년)	각 행정구역은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, 전 도시 주차관리 시스템을 통합관리를 목표로 설정

자료 : 중국주차망

【사례1】 2017년 심천시정부는 <주차시설건설사업 실시의견>을 발표하여 PPP(민관합작투자사업)방식으로 공공주차장을 대폭하고 심천주차 산업산업연맹을 설립하며 스마트주차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. 2020년 까지 신규 주차공간을 40만 개 건설하는데 그 중 스마트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15%까지 확보하기로 목표 설정

- 지방정부는 토지양도, 자금출자 방식으로 공공주차장, 도로주차장 건설에 참여
 - 북경 : 북경시정부는 자원우세, 재정자금, 통합관리 등 우위로 북경시 공영주차장 및 도로주차장 자원의 16.7% 확보
 - 상해 : 2016년 상해시교통건설위원회는 1억 9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아시아 최대 입체형 주차장(주차규모 1200대)을 건설

【사례2】 2016년 대련시정부는 기차역 부근의 폐건물을 재활용하는 목적으로 9000만 위안을 한국E-PARKING회사의 스마트주차장 설비 및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2017년 8월에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음. 동 주차장의 주차공간은 약 600개에 달하며 일 평균 이용 자동차가 2000대에 달함. 이는 동북지역에서 최초의 대형 스마트주차장임

- 2015년부터 인터넷의 고속성장으로 ‘인터넷+주차’ 비즈니스 모델 이 벤처 자본의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음
 - BAT기업(바이두, 알리바바, 텐센트 3대 인터넷기업)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간접투자 방식으로 스마트 주차산업에 진출
 - 바이두는 ‘바이두지도(百度地图)’, ‘바이두money’ 시스템을 개발하여 스마트 주차산업에 참여
 - 알리바바는 ‘알리페이(支付宝)’, ‘가오더지도(高德地图)’ 등 스마트주차 결제, 주차공간 통합관리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
 - 텐센트는 스마트주차 위챗계정을 개발하고 ‘위챗지불’을 주차요금 결제 방식으로 하는 APP를 개발하여 스마트주차장 산업에 침투
 - 벤처자본이 인터넷+주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. 2015년 기준 약 20억 위안 규모의 벤처자본이 30여개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

- 인터넷 고속발전에 힘 입어 주차설비 제조업체의 사업영역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스마트주차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묶어 일괄적인 제품 및 서비스 제공까지 확대

IV. 향후 전망 및 시사점

□ 스마트 주차산업은 아직 초기 도입 단계로 성장공간이 매우 큼

- 주민의 소비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자동차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늘어 날 전망
 - 따라서 주차장 및 주차공간 수요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임

<2018~2022년 주차공간 수요량 예측>

(단위 : 만 개)



출처 : 중국주차망

- 정부의 스마트 도시전략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
 - 선진국의 주차장 산업 시장규모가 GDP의 1%에 근접수준을 감안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
 - 현재 스마트주차장 비율이 6%에 불과해 전통 주차장을 스마트화로 개조

시키는 프로젝트 및 신규 스마트 주차장 건설규모가 많을 것으로 예상

【사례3】 심천시는 2020년 까지 주차장 산업규모를 500억 위안까지 육성시키는 전략을 발표. 그 중 주차장 건설시장 규모 170억 위안, 주차설비 제조 및 설치 시장규모 130억 위안, 주차장 운영관리 시장규모 230억 위안으로 목표 설정

□ 스마트 주차장 건설규모가 확대되고 주차산업 관련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중

- 2017년 기준 스마트 주차장 입찰건수는 전년동기대비 28.7% 증가한 2,513개에 달함(중국주차망 발표자료)
- 2017년 중국 전역에 총 826개 기업이 스마트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150개 주차장이 준공
 - 그 중 강소성(13.1%), 절강성(12.4%), 광둥성(9.4%)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차지
- 스마트 주차관리에서 가장 핵심요인은 주차공간의 검색, 안내, 주차위치 확정 등 3가지 임
 - 주차공간 안내시스템은 기존 1세대의 전자게시판 기술에서 2세대 초음파 기술로 업그레이드되어 주차효율이 대폭 향상
 - 현재 일부 주차장에서는 대형 플레이어를 통해 주차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

□ 한국기업은 기술제휴 전략으로 진출이 필요

- 중국 스마트주차산업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많지 않아 경쟁이 심하지 않음

- 글로벌 기업들은 세부시장 진출이 미흡한 편임
- 반면에 중국 기업은 설비 쪽으로 강세를 보이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아직도 효율적이 되지 못하여 약세
-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한국기업은 사물인터넷, IT솔루션 등 면의 비교우위로 세부시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제휴를 통한 진출이 효율적임
- 올해 3월 22일 개시된 한·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은 향후 서비스교역이 폭넓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
-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한바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
- 특히 부동산 개발사가 발주하는 일반 상업 및 거주용 빌딩, 쇼핑몰, 호텔 등에서 주차장 관리시스템에 대한 수요에 주목해야 함

참고 : 주요 전시회 정보

2018 상해국제스마트주차설비전시회			
개최지	중국, 상해	개최기간	2018.6.11~6.13
개최주기	매년	최초 개최연도	2015
주요 참가국가	미국, 한국, 일본, 호주 등 30여 개 국		
전년도 참가업체	200개	전년도 참관객수	32,000
주최 기관명	上海扩展展览服务有限公司		
홈페이지	www.parkingexpo.cn		
전시분야	기계식 주차장, 스마트 제어시스템, 스마트 주차장관리시스템		
전시품목	요금관리시스템, 안내시스템, 번호자동인식시스템 안전설비 및 장치		

2018 중국국제스마트교통전시회			
개최지	중국, 북경	개최기간	2018.5.28~5.30
개최주기	매년	최초 개최연도	2007
주요 참가국가	네덜란드, 영국, 독일 미국, 한국, 일본, 호주 등 80여개 국가		
전년도 참가업체	396개	전년도 참관객수	40,000
주최 기관명	중국스마트교통협회, 중국교통부연구원, Amsterdam RAI (네덜란드)		
홈페이지	www.itsasia.com.cn		
전시분야	교통관리, 공공교통, 스마트 주차, 스마트교통 등		
전시품목	교통관리, 공공교통, 스마트 주차, 스마트교통 등		

북경국제도시스마트주차전시회			
개최지	중국, 심천	개최기간	2018.6.28~6.30
개최주기	매년	최초 개최연도	2007
주요 참가국가	미국, 한국, 일본, 독일, 프랑스, 네덜란드, 싱가포르 등 50여개 국가		
전년도 참가업체	350개	전년도 참관객수	40,000
주최 기관명	중국도시발전위원회, 중국주차장설비협회		
홈페이지	www.chinaigpk-expo.com		
전시분야	스마트 주차설비, 주차장 관리시스템		
전시품목	기계식 주차장, 스마트 주차설비, 안전설비, 스마트 충전 등		